

1462m ‘천사의 다리’ 걸으며 섬 속의 섬 여행 즐긴다



3부 전남도 선정 ‘가고 싶은 섬’

⑤ 안좌·반월권

2010년 55억원 들여 다리 준공
사람·오토바이만 통행 가능
반월도 400년된 당산숲 보호림
새천년대교 완공엔 관광객 북적



안좌도와 박지도, 반월도를 잇는 천사의 다리 전경. 차량이 아닌 사람과 오토바이, 리어카 등만 통행이 가능한 1462m의 다리로, 지난 2010년 준공됐다.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천사의 섬’으로 알려진 신안은 섬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다. 실제 신안의 섬 개수는 880개, 1025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신안이 ‘섬의 본고장’이라는 것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압해도, 암태도, 자은도, 팔금도, 안좌도, 도초도, 비금도, 임자도, 신의도, 하의도, 장산도, 지도, 흑산군도, 증도 등 각각의 특색과 지형, 문화를 가진 섬들이 있다. 전남도의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2015년 대상지로는 안좌도(안좌면)에 속해 있는 반월도, 박지도, 사지도, 부소도 등 안좌반월권이 선정됐다.

◇1462m 천사의 다리로 연계된 섬들=반월도는 신안군 안좌면에 딸린 섬으로, 2.1km의 면적에 62가구 117명(2013년 기준)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목포항에서 서쪽으로 32km, 안좌도에서 남쪽으로 1km 지점에 있다. 섬 바로 인근에 있는 박지도, 사지도, 부소도와 모두 합친 면적은 6.05km에 134가구 240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월도에 분교와 보건진료소, 사지도에 치안센터가 있다. 이들 섬에 큰 변화가 온 것은 지난 2010년 2월24일이다. 안좌도의 두리

항과 박지도(577m), 박지도와 반월도(915m)를 잇는 ‘천사의 다리’가 준공된 것이다. 2006년 말 착공한 이 다리에 55억원이 들었는데, 사람과 오토바이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은 여전히 선박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 다리로 인해 기반시설, 생활품 등이 풍부한 안좌도와와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왕래가 많아지고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다.

반월도는 반달 모양으로, 안동네(큰마을)와 퇴촌마을로 구성돼 있다. 어깨산과 대덕산에는 덕덕, 도라지 등 산약초가, 인근 갯벌과 바다에서는 김, 전복, 낙지, 석화 등이 풍부하다.

박지도는 최고 130m의 기복이 심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썰물때는 안좌도, 반월도 등과 연결된다. 신안군 섬들은 대부분 갯벌이 많이 있지만 박지도에는 특이하게도 갯벌이 별로 없다. 1.75km의 면적에 17가구, 21명(2013년 기준)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다. 2.22km의 면적에 44가구, 88명(2013년 기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사지도는 상사지도와 하사지도로 나뉘어 있었으나, 두 섬을 잇는 간척공사가 이루어져 한 개의 섬이 됐다. 0.67km의 작은 섬 부소도는 11가구, 17명(2011년 기준)이 살고, 썰물

때면 안좌도와 노들길로 연결된다.

◇반월도의 숲, 박지도의 감태자생지, 사지도의 해수욕장=반월도, 박지도, 사지도, 부소도 등은 천사의 다리, 노들길 등으로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월도는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의 안녕과 풍어,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모셨다가 유명무실화됐지만, 오는 2016년부터 이를 재현할 예정이다. 이 당제가 열렸던 반월도의 당산 숲은 400년 이상된 느릅나무와 팽나무 등이 있으며, 지난 1982년 12월 전남도 보호림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안좌도와 박지도, 천사의 다리, 반월도 어깨산을 잇는 5km의 등산로, 학생 1명의 반월분교(2016년 폐교 예정)도 주요 자원으로 분류된다. 박지도에는 애덕나무, 그 앞으로 펼쳐진 녹색의 감태 집단 자생지, 독실(물고기를 잡기 위해 해안의 굴곡 부분에 돌담을 쌓아놓은 것) 등이 있다. 섬 주변에 모래가 많고 섬의 모양이 평과 비슷한 사지도는 해안선이 6.2km에 불과하지만 5개의 해수욕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소도는 썰물이 되면 드러나는 1.2km의 노들길을 통해 안좌도와 연결된다.

5363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새천년대교(압해~암태)가 준공될 경우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안좌반월권에도 큰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반시설과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 창출에 집중=안좌반월권은 모두 40억원을 들여 관광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8700m에 이른 당산 복원사업을 통해 쉼터, 돌담 등을 정비하고, 보라색 꽃길 조성 등 사계절 꽃피는 퍼플섬 조성사업도 시작할 방침이다. 명품 3도(반월도, 박지도, 부소도)의 해안 둘레길 9.5km를 신설하는 한편 동백섬으로의 복원, 캠핑장 시설 설치 등 반월개발계획도 수립한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휴양시설, 폐교를 앞둔 반월분교의 숙박시설로의 리모델링, 갯벌생태 체험교육장 및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도 계획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머물고 싶은 섬으로써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안좌반월권에 새천년대교가 준공될 경우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찾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욕도 높은 만큼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하늘에서 본 반월도. 안동네(큰마을)와 퇴촌마을로 구성돼 있으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117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월도의 당산 숲. 오는 2016년부터 당제를 복원할 예정으로, 400년 이상된 팽나무 등이 유명하다.



천사의 다리를 통해 연결된 안좌도~박지도~천사의다리~반월도의 산책로. 바다와 산을 연결하는 유일한 등산로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